

▲ 본문 (고린도전서 1:18-24)

<https://www.biblegateway.com/passage/?search=1%20Corinthians%201&version=NIV,KLB,BB>

▲ 요절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KLB)

De mensen die verloren gaan, vinden het een belachelijk verhaal dat Jezus ons gered heeft door aan het kruis voor ons te sterven. Maar voor ons die gered zijn, is het de kracht van God. (BB)

The teaching about the cross seems foolish to those who are lost.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ICB)

▲ 오늘의 문답 (96-98문)

제35주일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¹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²

Q. What is God's will for us in the second commandment?

A. That we in no way make any image of God¹ nor worship him in any other way than has been commanded in God's Word.²

¹ Deut. 4:15-19; Isa. 40:18-25; Acts 17:29; Rom. 1:22-23

² Lev. 10:1-7; 1 Sam. 15:22-23; John 4:23-24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¹

Q. May we then not make any image at all?

A. God can not and may not be visibly portrayed in any way. Although creatures may be portrayed, yet God forbids making or having such images if one's intention is to worship them or to serve God through them.¹

¹ Ex. 34:13-14, 17; 2 Kings 18:4-5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¹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²

Q. But may not images be permitted in churches in place of books for the unlearned?

A. No, we should not try to be wiser than God. God wants the Christian community instructed by the living preaching of his Word—¹ not by idols that cannot even talk.²

¹ Rom. 10:14-15, 17; 2 Tim. 3:16-17; 2 Pet. 1:19

² Jer. 10:8; Hab. 2:18-20

* 글을 못 읽거나, 학교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을 지칭

▲ 배경 말씀 보기

18.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진리 =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신 일,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살아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19.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죽은 자”들의 “지혜” 자기 생각은 결국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20. 하나님 외에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 계획을 따라 올 수 없습니다

21.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디자인 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방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22. 유대인은 기적보기를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사람의 지식 지혜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23.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가 살리신 자들은, 십자가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2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자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파워와 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Brainstorm:**

지난 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에 이어서

“우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파워와 지혜를 나타내시기로 한 길,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외에 다르게 하나님의 파워와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오해하는 일.